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복음과 상담」 제34권 3호(2026): 75-111

http://dx.doi.org/10.17841/jocag.2026.34.3.75

기독교인 내담자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기독상담기관 이용 경험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박 안 나* 이 수 진** 한 경 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독상담기관에서 상담받는 전 과정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통한 기독상담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Creswell의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바우처로 기독상담을 받은 성인 기독교인 6명을 2025년 7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심층면담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통해 71개의 주제, 20개의 하위범주 및 8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두려움, 국가 지원에 대한 양가적 태도, 기독상담 선택의 고민을 거쳐 기독상담기관을 선택하였으며, 상담 과정에서는 비밀보장 및 신앙적 자기개방의 안전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재해석한 후 심리적 고통의 완화와 삶의 변화를 체험하였다. 이들에게 바우처를 활용한 기독상담은 '국가가 숨통을 터주고 기독상담이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신 회복의 여정'으로 이해되었다. 본 연구는 기독 전문 상담기관이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 접근성과 지속을 촉진하는, 공적 정신건강 체계의 의미있는 제공자임을 보여주며, 기독상담의 사회적·신앙적 기여와 더불어 제도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상담, 기독교인 내담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기독상담기관, 탐색적 사례연구

---

* 헤세드상담센터 센터장, 제1저자

** 헤세드상담센터 전문상담사, 참여저자 / *** 헤세드상담센터 전문상담사, 참여저자

www.kci.go.kr

Ⅰ. 여는 글

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까지 가중되며 정신질환 진료 인원이 2021년 411만 명까지 증가한 정신건강 위기 사회가 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10년 내 자살률을 5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기 제공하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으로,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를 반영하듯 이 사업의 이용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2025년 4월 이미 전국 1,474개 제공기관과 6,770명의 제공인력이 등록되어 누적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 373,203건의 심리상담이 제공되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추천 의향이 95.9%로 나타났으며, 중등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이 정상 범위로 완화된 비율도 각각 51.4%, 67.3%였다(전진아 외, 2025). 최근 결과를 집계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고위험이었던 이용자가 경도 이하로 호전된 회복률이 65.5%라고 보고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심리상담 바우처가 국민의 실제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메디팜헬스뉴스, 2026).

상담 서비스의 보편적 시대를 앞당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기독상담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먼저 기독상담 '기관'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심리상담 정책은 종교중립적인 인본주의적 심리상담 이론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업의 '제공기관' 등록은 종교와 무관하게 자격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므로 기독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독상담기관도 별도 구분이나 제한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단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인 '내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내담자에게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기에 신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을 원하는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자격을 갖춘 등록기관인 기독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영성적 가치가 존중받기를 원하므로(이혜정, 강연정, 2023)

www.kci.go.kr

바우처 상담을 희망하는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제공기관을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 내담자가 국가 지원 바우처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기독상담기관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국가 제도를 활용한 기독상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독상담 기관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운영과 질 관리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나 내담자의 신앙적 가치와 관련된 기관 선택 및 상담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전진아 외, 2025), 이혜정과 강연정(2023)이 기독교상담 전문가 7인의 사례개념화 경험을 분석하여 신앙적 관점이 내담자 이해와 상담 과정에 통합되는 양상을 밝힌 연구가 있으나, 상담자 중심의 연구로 내담자의 선택과 경험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박진성(2017)은 15회기 이상 상담을 받은 기독교인 내담자 11명의 경험을 통해 상담 성과와 영적·관계적·교육적 자원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다만 바우처 사업 도입 이전의 상담 경험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적 지원과 제한된 회기라는 제도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기관 선택 및 상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인 내담자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서 지정된 기독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상을 실제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적합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Yin, 2016). 본 연구는 기독상담기관의 상담서비스 개선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공적 정신건강 지원체계 내에서 기독교 상담의 전문적 가치와 역할을 논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기독상담기관을 이용하기까지의 상담추구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기독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경험은 어떠하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Ⅱ. 펴는 글

1.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와 기독상담기관

www.kci.go.kr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개편과 함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1],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심리상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을 근거로 설계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전국 단위의 제공기관이며, 등록된 제공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위험군이나 정신질환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에 개입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증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보건복지부, 2026). 즉 이 사업은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지역사회 기반 상담기관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체계'라는 국가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국가 정책과 지역사회 실천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이러한 협력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성 증진의 효과까지 기대하게 한다.

이 사업의 시행은 기독상담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상담기관에게 보다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상담기관 등록 기준, 상담 인력 자격, 상담료 등은 별도의 통일된 기준 없이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행되면서 국가 차원의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특히 상담학계, 심리학계 및 정신건강의학계가 논의를 거듭하는 첫 발판이 된 것 또한 의의가 크다. 여전히 여러 의견과 변수가 있어 이후 개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 사업을 위해 학계 및 업계에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기준이 설정된 것은 큰 의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업이 설정한 제공기관 등록 요건은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으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상담 인력의 자격을 규정하였는데, 이 사업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자격이 요구된다. 제공기관의 역할은 바우처 서비스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공인력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은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서비스를

1) 본 고에서는 변경된 명칭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통일하여 표기하였으나 연구참여자 진술은 마음투자라고 한 경우 마음투자라고 표기하였다.

www.kci.go.kr

제공해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동일한 검사(PHQ-9 등)를 종결회기인 8회차에도 시행해서 그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6). 국가가 설계한 바우처 제도 자체는 종교중립성을 전제로 하며, 이 사업도 종교 관련 기관의 참여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인 제공기관에 대하여, 신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상담기관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동일한 자격 요건 위에서 배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의 제공기관 목록에는 기관명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상담을 추구하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기독상담기관들이 적지 않게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즉, 제도상 제공기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설·인력·자격 요건의 충족이며, 기관이 표방하는 세계관이나 종교적 정체성은 등록 심사의 대상이 아닌것이다.

그렇다면 기독상담기관과 가장 관련이 깊은 주제인 상담 접근 이론, 심리상담 방법에 대한 기준은 어떨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여 발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2024)은 심리상담의 단계별 구성 및 증상별 가이드라인을 특정 심리상담 이론이 아닌 과정기반실천과 근거기반실천으로 설명하였고, 내담자 평가는 DSM-5 기반의 진단 척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전, 사후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여 기독상담이 충분히 적용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매뉴얼은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을 기반으로 내담자의 어려움과 문제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다양한 심리적 조력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으로 보고, 심리상담 전문가는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해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역량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심리상담의 정의와 상담 전문가의 역할 규정은 기독상담이 지향하는 목표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공공 정책의 영역에서 종교적인 것은 흔히 제도적 설계나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상담 관련 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는 종교 관련 상담을 배제하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기독상담기관의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며 기독상담기관에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기독교인 내담자들의 기독상담기관 접근도 자유롭다.

이 사업은 서론에서 밝힌 긍정적 성과와 함께 첫 시행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

www.kci.go.kr

계에 대한 지적도 공존하는데, 여기에도 기독상담기관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자 중 여성이 70%를 넘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내담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점과 맞물려 기독상담기관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청년층 이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조선일보, 2025; 민주당 국감자료실, 2025).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제공기관 간 서비스 질 편차 관리도 이 사업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전진아 외, 2025), 양질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기독상담기관의 존재는 내담자와 지역사회에 실질적 유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교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추구와 상담기관 선택

1) 기독교인의 상담추구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의료진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라고 하며, 내담자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통해 상담을 받기까지는 여러 번의 심리적 갈등과 결정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 이에 상담분야에서는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이어져 왔으며,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상담을 받지 않는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도 함께 수행되어 왔다(연규진 외, 2016; 이안나, 강영신, 2021).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과 태도'라는 요인에 주목한다.

기독교인 내담자에 대한 연구들 역시 기독교인의 상담추구 과정에서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상담에 대한 인식을 갖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정신건강 인식을 비기독교 그룹과 비교하여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비종교인에 비해 자신의 문제나 정신건강의 원인을 종교적 요인 또는 개인의 도덕성과 연결 짓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Schultz et al., 2025). 이는 이 주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삶에 진지하게 통합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 삶의 문제나 정신건강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영적 개념화 경향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심리상담을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ww.kci.go.kr

(Mayers et al., 2007; 홍구화, 2022).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관점은 고통의 해결도 신앙에 있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를 찾는 경향 혹은 신앙 공동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영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기독교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영적 상태의 반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의존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상담을 받더라도 자신과 비슷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치료자를 선호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기독교인 내담자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담추구 행동뿐만 아니라 상담사 선호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Lloyd, Reid, & Kotera, 202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Schultz et al., 2025).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신앙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해 상담받기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ornsheuer, Henriksen, & Irby, 2012; Cragun & Friedlander, 2012; 박진성, 2017; Lloyd, Reid, & Kotera, 2021).

이처럼 기독교인의 상담추구 과정에는 영적인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목회자나 신앙 공동체가 1차적 대상이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독상담분야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심리상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가가 기독교인의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많은 연구들이 목회자가 전문상담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경우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목회자 변수의 영향을 여러 차례 보고해 왔으며(Fisher & Turner, 1970; Mayers et al., 2007; 연규진 외, 2016), 한 연구는 교회 공동체 및 종교 지도자의 지지나 의견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라고 밝혔다(Lloyd, Reid, & Kotera, 2021). 개인의 종교성, 교회 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목회자 요인이 종교인들의 전문적인 도움 요청 태도 및 의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연구 또한 개인의 종교적 헌신도가 높을수록 때때로 심리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목회자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지지를 경험하면, 성도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데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Lefevor et al., 2021). 연구자들은 신앙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지도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기독교 학계는 상담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활성화하며 목회 상담, 성경적 상담, 기독교 평신도 상담, 기독교 코칭, 영성 지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

www.kci.go.kr

을 꾀해왔고 관련 대학원 전공 신설과 학회 설립, 학술지 발간 및 자격제도의 운영 등을 통해 임상 현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김경희, 2018; 강연정, 2019). 이에 따라 사역 현장에서 직면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많은 목회자와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의 인식이 목회에 심리상담을 접목하거나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상담기관을 설립하는 교회들도 늘어나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전문 상담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기독교인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수치심이나 도움을 구하려는 태도에서는 비종교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해 기독교인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Schultz et al., 2025). 그동안 연구자들은 기독교인이 정신질환을 과도하게 영성화하여 죄의 결과로만 치부하는 인식은 전문적 치료를 방해하여 더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정신건강 심리교육 등을 통해 영적 해결책과 전문적 치료가 대립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기독교 학계의 변화뿐 아니라 목회 현장을 통해서도 목회자나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Lloyd, Reid, & Kotera, 2021).

2)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사 및 상담기관 선택 기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영적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은 기독 상담자에 대한 선호라는 특징과 연결되며, 종교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기독교인이 상담자가 같은 종교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연구는 이 특징을 잘 보여준다(Schultz et al., 2025).

앞에서 기독교인이 상담추구 전에 영적 지도자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을 언급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상담자에게도 단순히 전문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 영적 동반자 혹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며, 상담 과정 중에 상담자가 기도를 활용하길 바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ld & Erikson, 2007; Stanford & Mcalister, 2008). 어떤 연구는 성도들이 때로 목회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의존하기 쉬우며 이는 내담자에게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상담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목양적 역할을 하는 상담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수용과 용서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가 바탕이 된 상담을 원하

www.kci.go.kr

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연구도 있다. 비기독교인 상담사 혹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상담사가 자신의 신앙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Mayers et al., 2007; Bornsheuer, Henriksen, & Irby, 2012). 실제 상담자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경우 기독교인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 연구자들은 상담자에게 기독교인 내담자의 종교적 세계관을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신앙이 없는 상담자도 최소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수용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연규진 외, 2016).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존중받을 수 있고, 내담자인 자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영적인 측면까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삶의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사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자기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안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심리적 요구이며 상담자가 신앙적 언어를 이해할 경우, 내담자는 더 깊은 신뢰를 보인다(박진성, 2017). 더 나아가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이 신뢰의 기반 위에 상담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 함께 다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전문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박진성, 2017). 그러나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상담사가 신앙심만 깊은 것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차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심리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도 기대하는 경향도 뚜렷해져 학벌, 자격은 물론 평판과 같은 요건도 상담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박진성, 2017).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Bornsheuer, Henriksen, & Irby, 2012).

이와 연결하여 기독교인 내담자들에게는 상담실 내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배제되지 않고, 내담자의 신앙적 언어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의 여부, 상담 환경이 영적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기준이 된다(Mayers et al., 2007; Greenidge & Baker, 2012; 정선훈, 2019; 최민영, 2021). 상담실이 신뢰받는 목회자나 교회와 연계되어 있거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면 기독교인 내담자의 신뢰를 얻는데 유리하다(Frank, 1982; 정선훈, 2019; 최민영, 2021).

마지막으로, 상담을 경험한 주변인들이 내담자들의 상담추구를 촉진했다는 연구결과는 기독교인 내담자들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기독교인 내담자들에게 신앙 공동체는

www.kci.go.kr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하며 목회자의 인식 못지 않게 공동체나 교우들의 권유나 경험 공유 등은 상담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연규진 외, 2016; Scott & Lambert, 2017).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기독교인 내담자는 문제에 대한 영적 개념화 경향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기까지 목회자와 신앙 공동체를 우선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며, 전문 상담을 선택한 이후에도 상담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지를 핵심적인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독상담기관을 고려하는 기독교인 내담자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시행 이후 기독상담기관을 통해 국가 지원 바우처를 이용하는 사례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맥락 안에서 기독교인 내담자가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독상담기관을 찾고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상담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과 경험을 탐색적 사례연구로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인 기독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추구 및 상담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이론적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현상에 대하여 실제 맥락 속에서 그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경험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 유용하다(Yin, 2016). 본 연구는 Creswell(2017)이 제시한 질적 사례연구의 절차에 따라 사례를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인 기독상담기관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으로 정의했으며,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이용 경험을 각각 하나의 사례로 간주하는 복수사례연구(multiple case study)로 설계하여 총 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Creswell, 2017).

2) 연구참여자 및 자료분석

연구의 참여자는 ① 기독교인으로 ②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독상담기관에서 ③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상담 8회기를 모두 완료한 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모

www.kci.go.kr

집은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이 총 6명이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참여자	나이	성별	이전상담경험 및 만족도	주호소	바우처 상담 정보 경로	상담기관 정보 경로	바우처 상담횟수
연구참여자1	25	남	있음(하)	공황	상담사	교회 기관	1
연구참여자2	50	여	없음	불안	지인	검색	2
연구참여자3	38	여	있음(상)	우울	교역자	교역자	1
연구참여자4	34	남	있음(상)	분노	지인	지인	2
연구참여자5	42	여	있음(하)	우울	보건소	검색	2
연구참여자6	31	여	있음(하)	무기력	가족	검색	2

*바우처 상담횟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하여 현 상담기관 및 상담자에게 제공받은 횟수 (1회 = 상담 8회기)

자료수집은 2025년 12월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수집된 면담 녹음 자료는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먼저 사례 내 분석에서는 참여자별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개방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을 도출하고, 이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각 사례별 주제를 구성하였다. 이후 사례 간 분석에서는 6개 사례에서 도출된 범주와 주제를 상호 비교하여 공통 주제와 사례별로 차별화되는 지점을 함께 확인하였다 (Creswell, 2017).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연구자 검토 및 참여자 검토 절차를 실시하였다. 동료 연구자 검토는 질적 사례연구로 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자의 분석 범주와 주제 도출이 원자료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받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검토는 분석된 내용이 참여자의 경험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참여자에게 확인받았다.

www.kci.go.kr

4. 연구결과

1) 사례 내 분석

본 연구의 사례 내 분석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상담추구 과정과 바우처 상담 경험을 중점으로 기술하였다.

(1) 연구참여자1

연구참여자1은 25세 미혼 남성으로, 공황 증상으로 인해 직장을 퇴사한 이후 자존감과 자신감이 저하되고 불안이 심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가족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학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상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황 증상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나눔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타인의 경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상담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갖게 되었다. 연구참여자1은 신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와 공황 증상에 대해 고민하던 중,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전문적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출석 교회의 기독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1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굳이’라는 표현으로 억압하고 회피하는 패턴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안전한 상담 장면에서 공황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점차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불안과 무기력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상담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담료 부담을 호소하였고, 이에 상담사로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제도를 안내받아 상담을 이어갈 수 있었다. 상담을 받고 있던 기관이 바우처 제공기관이었기에 안정적인 상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1은 자기표현을 연습하며 상담자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신앙으로 자기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며 용기를 얻어 변화에 도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2) 연구참여자2

연구참여자2는 50세 기혼 여성으로 상담 경험이 없었으나 오랫동안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느껴 상담을 생각하게 되었다. 언젠가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상담 신청하기를 망설였던 연구참여자2는 지인을 통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에 대해 듣게 되면서 상담 신청을 구체적으

www.kci.go.kr

로 생각하게 되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연구참여자2는 기독상담을 받으면 교회에서 듣던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상담을 받는다면 기독교인 상담자에게 받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나 지역에 자신이 상담받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지역의 상담 기관을 찾아보게 되었고 기독상담기관을 찾아보다가 상담사의 자격을 보고 상담을 신청할 기관을 결정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2는 상담과 상담 기관을 결정하기까지 고민과 갈등이 많아 상담에 큰 기대가 없었다. 상담이 시작된 후에도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등의 생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상담에 임하였다. 상담이 자기 이야기를 편안히 할 수 있는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안전한 환경이라는 점을 확인하기까지 여러 회기가 소요되었다. 마침내 '더 많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우처에서 제공한 8회기가 모두 끝나 해당 기관 해당 상담사와 상담을 더 이어가는 전문상담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해가 바뀐 후 바우처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바우처를 한 번 더 발급받아 같은 기관, 같은 상담사에게 상담을 이어갔다. 판단 없이 수용되는 상담관계를 통해 연구참여자2는 자기개방을 통해 자기이해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남들이 자신을 평가한다고 믿는 신념에 갇혀 불안한 것과 그 기저에 목회자 부모님의 양육방식과 자신의 신앙관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상담관계 안에서 타당화를 경험하며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타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가며 결국 이번 상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을 듣게 되는 것을 상담의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다.

(3) 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3은 38세 탈북 여성으로,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힘든 기억이 떠오르는 괴로움 때문에 상담을 결심하게 되었다. 탈북 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그는, 당시 상담을 통해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억압과 자기 질책이 필요했으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기표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인관계 기술과 자기 인식에 도움을 받았다. 이후 생업에 몰두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중 대학에 입학하면서 생각할 여유가 생기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탈북 후 중국에서 겪은 고통의 기억에 사로잡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교회 교역자에게 호소하면서 돌봄과 함께 기독상담기관을 소개받았다. 당시 연구참여자3은 불친절한 정신과 진료에 회의를 느끼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가 바우처를 통해 기독상담을 받을 수

www.kci.go.kr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으며, 신앙을 공유하는 상담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상담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연구참여자3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상담 과정에서 부담이나 눈치를 느끼지 않게 했다. 실제로 기독상담기관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상담자와의 만남은 안전감을 주었으며, 연구참여자3은 자신의 과거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슬픔을 해소하고 정화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전적인 수용과 사랑을 체험하였다. 특히 상담 중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깨달음을 얻으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경험은 큰 의미가 있었고, 자기 질책에서 자기 격려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감사기도를 일기로 기록하면서 몸과 마음,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번 상담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기독상담을 통해 해결하려 한 선택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4) 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4는 34세 남성으로 군에 입대 후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처음 상담을 받기 시작하여 대학교 상담 기관에서 3년, 졸업 후 사회복지관에서 상담 등 오랜 시간 상담을 받아온 경험이 있다. 장기간 상담 덕분에 좋지 않은 선택을 덜 하면서 살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장기간 상담에 지쳐 상담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많이 마시며 풀게 되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지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간을 3년 가까이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취업을 위해 찾아다니는 중 취업보다도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라는 권유를 받고 다시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상담받을 곳을 찾던 중 이전에 만난 사회복지관 상담사가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매우 잘 챙겨주었고 가끔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 지인 소개의 기독상담기관에서 바우처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자신은 신앙이 깊지 않지만 기독상담 전문가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상담에 임하였다. 연구참여자4는 바우처로 기독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점점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상담에서 자신을 향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믿음이 자신이나 타인을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 오히려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

www.kci.go.kr

겨지는 경험을 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에 대한 성경의 조언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8회기를 마치고 전문상담으로 상담을 이어갔으며 해가 바뀌고 다시 바우처 상담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 바우처 상담을 통하여 지금까지 혼자라고 느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바우처 상담이 깨진 그릇을 본드로 붙인 느낌이라면 두 번째 바우처 상담은 깨지지 않고 더 튼튼해지도록 겉면에 약을 바른 것 같다고 보았다. 이전에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것으로 대처했으나 현재는 술을 끊고 충동조절 약을 먹으며 기도하고 상담사와 함께 현재의 문제와 상황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5) 연구참여자5

연구참여자5는 42세 여성으로 이혼 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기력감을 느껴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했다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안내받게 되었다. 이전에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상담사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기독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비기독교인 상담자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어느 순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결국 더 잘하라는 메시지만 듣는 것 같아 상담자의 세계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구참여자5는 기독상담기관을 통해 바우처 상담을 받으면서 신앙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렇게 험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는지 판단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5는 자신이 보내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시는지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상담사와 마음껏 나눌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봄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을 고백하며 상담을 마치게 되었다. 해가 바뀌자 연구참여자5는 다시 바우처 상담을 신청하여 같은 기관의 같은 상담사에게 바우처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남루한 모습이지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눌 수 있었고 상담은 여전히 자신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가장 솔직한 심정을 나누고 충분한 공감을 받은 연구참여자5는 자신의 살아온 날을 재해석하는 힘과 앞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되며 상담사와 진로를 함께 계획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감소되었다.

(6) 연구참여자6

연구참여자6은 31세 여성으로 공황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 친구와

www.kci.go.kr

동생의 권유로 상담에 오게 되었다. 대학생 때 1회 상담을 받고 중단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며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도움을 기대하며 학교 상담실을 방문하였으나 상담 후 지인을 통해 상담사가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사용했다는 것을 듣고 자신의 치부가 노출된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연구참여자6은 공황 증상과 함께 심리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전 상담에서 받았던 충격으로 기대감은 없었고 단지 약을 계속 먹고 싶지 않아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바우처 상담을 생각하게 되었다. 모태신앙인 연구참여자6은 기독 신앙에 배타적인 상담사를 만나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부모님의 조언으로 기독 상담기관을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바우처 상담은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지금의 힘든 시간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확신하게 하였다.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자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큰 은혜를 주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건가, 나는 가치 없다,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 없다'라는 생각이 '나름 기특하게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재물, 물질, 능력 만능주의라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 안에서 자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의 수용과 함께 자신의 가치관들과 생각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를 확인받는 것을 상담의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다. 8회기를 마치고 전문상담으로 연장하였고 다음 해 다시 바우처를 발급받아 한 번 더 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6은 두 번째 바우처 상담을 통해, 이전에는 지난 대화를 반추하며 잘못을 찾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했으나 상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신앙적 관점에서 느끼는 가치관과 생각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힘이 되었고 무기력감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2) 사례 간 공통주제 분석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71개 주제들을 공통주제로 분류하여 20개의 하위

www.kci.go.kr

범주 주제가 드러났고 하위범주를 다시 분류하여 8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8개의 상위범주를 연구 질문 주제인 바우처 상담의 '상담추구 과정과 기대', '경험과 의미'로 분류하여 분석한 사례 간 공통주제를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사례 간 공통주제 분석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례 내 주제
상담추구 과정과 기대	(1) 첫 번째 산- 상담에 대한 두려움	① 상담 앞에 놓인 두려움의 문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도 될까 -상담 자체가 낯설고 두려움 -상담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문제를 직면하기 싫음 -이전 상담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
		② 해결의 몸부림에도 빠져드는 고통의 늪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온몸으로 겪음 -깡으로 버팀 -자책과 무기력에 빠짐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함 -감정적이 됨 -회피함
		③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함
		④ 때마침 접한 바우처 상담 정보	-지인의 권유 -병원에서 권유 -스스로 찾아봄 -홍보물을 접함 -상담기관에서 안내
	(2) 두 번째 산- 국가 상담 지원에 대한 양가감정	⑤ 국가 지원에 대한 양가 감정	-국가가 심리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 -성과중심이거나 탁상공론일까하는 염려
		⑥ 장점으로 넘게 한 고민의 문턱	-비용지원이라는 장점에 큰 비중을 두게 됨 -상담기관 선택에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은 것이 장점 -기존 기관/상담사에게 이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3) 세 번째 산-기독상담에 대한 고민	⑦ 기독상담 선택의 갈등	-기독상담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기독상담을 받더라도 국가 상담사업인데 기독상담을 받도록 지원할까라는 의문
		⑧ 신앙적 세계관 공유하는 대화의 중요성	-이전에 경험한 비기독교적 상담에서의 깨달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함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함 -주변 기독교인들의 조언으로 기독상담을 생각함 -검색을 통해 기독상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대표, 상담사 자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고민함
		⑨ 안전한 상담	-기독상담이라 안심

www.kci.go.kr

		환경에 대한 갈망	-기독상담이라 걱정 -안전에 대한 깊은 욕구 발견
바우처상담 경험	(4) 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안전한 환경을 경험	⑩ 나를 이해해주는 상담자와의 만남	-판단받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음 -내 이야기가 안전하게 전달되는 느낌 -기독교 세계관으로는 보는 관점이 통함
		⑪ 상담관계에서 느낀 안전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짐 -문제해결보다 더 중요한 안전감
	(5) 고통이 감소되며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경험	⑫ 심리적 고통의 완화	-살만한 상태가 됨 -죽을만큼 힘들지는 않게 되어 다시 삶을 생각함 -응어리가 해소됨
		⑬ 자기와 미래에의 새로운 인식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됨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됨 -나를 알게 됨 -회피하지 않으려고 함
		⑭ 기록을 통한 생활개선	-감정일기를 쓰거나 기도를 하게 됨 -불규칙한 생활, 절제가 시작됨 -관리받는 것처럼 생활을 관리하게 됨
바우처상담경험의 의미	(6) 국가는 숨통을 터주고 기독상담은 숨을 불어 넣어줌	⑮ 숨통을 터준 바우처 상담 지원	-국가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위로 -비용 지원 혜택이 가장 도움이 됨 -다시 이용하고 싶음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⑯ 상담회기 확대의 바람	-상담회기수가 증가되길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가 이어지길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길
	(7) 기독 전문상담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문제와 변화	-기독교 세계관으로 내 문제를 보게 됨 -인본주의로 볼 때는 몰랐던 문제가 이해되며 자유함 경험 -마음의 변화로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경험
		⑱ 전문가와의 만남 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묘막측한 타이밍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일하심 -상담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바뀜 -기독기관들이 바우처를 제공하게 되길
	(8) 상담은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⑲ 상담과 하나님과의 연결성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것임을 알게 됨 -상담은 하나님 관점을 알게 되는 일 -상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하시는 시간
		⑳ 기독교적 문제 이해의 욕구와 충족	-신앙이 있어서 기독상담자를 찾았고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됨 -신앙을 이유로 기독기관을 선택했고 선택에 만족함 -기독교인으로서의 안전을 경험

(1)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기독상담기관을 방문하기까지의 과정과 기대

www.kci.go.kr

① 첫 번째 산- 상담에 대한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상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꼈다. 상담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5와 연구참여자6은 이전 상담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담자에게 답답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 다시 상담을 받는 것에 기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또 힘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고, 상담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4도 '상담을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니 약간 진절머리가 났다. 상담도 많이 받았는데 당장 눈앞에 현실은 그대로여서...'라며 문제를 직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낮은 기대감을 진술했다. 이번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상담이 처음이었던 연구참여자2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혹여나 판단을 받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있었다.

> 낯선 것,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직분도 좀 걸렸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도 될까.. 혹시나 판단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교회에서 듣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상담이란게.. 어떻게 진행되고..내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르니..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구요(연구참여자2).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부담감보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더 무겁고 괴로웠다.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계속 자책만 하다 '차에 치여서 죽어도 우리 엄마 아빠만 슬퍼하지...'라는 생각까지 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반복되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자신이 취해 온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더 나아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문제가 생기면 항상 혼자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혼자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해결 방법을 찾는...그런데 교회 사람들하고 깊게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깊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들었던 거를 생각하기도 하고...하나씩 해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혼자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나 혼자서 해야 될 것만 같았는데 상담을 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이...(연구참여자1)

www.kci.go.kr

연구참여자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스스로 찾아보거나 때마침 홍보물을 보거나 지인이나 기관의 권유를 받아 바우처 상담을 알게 되었다.

② 두 번째 산- 국가 상담 지원에 대한 양가감정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바우처를 통해 국가가 상담을 지원한다는 정보에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과 중심이거나 탁상공론일까 하는 염려의 양가감정을 경험했다. 이전에 경험했던 복지 프로그램에서 실망했던 연구참여자3는 상담의 질이 좋지 않겠다라는 선입견이, 연구참여자4는 자살율을 줄이는데 급급한 사업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연구참여자6은 상담기관이 바우처로 온 내담자는 대충대충 상담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했다. 그러나 상담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이러한 우려를 넘는 요소로 작용했다. 상담료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연구참여자들은 만약 상담료 지원이 없었으면 상담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상담받았던 기관이나 상담사에게 이어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국가가 지원하는 상담에 대한 고민의 문턱을 넘게 하는 요소였다.

> 상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부담을 줄여줬죠. 그리고 뭔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국민이 힘들다는 거를 국가 차원에서 인지를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심리적으로 이상해서 받는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게 된 것 같아요. 국가 제도니까.. 그냥 힘들면 누구나.. 그러니까 상담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연구참여자3)

③ 세 번째 산- 기독상담에 대한 고민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독상담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 고민은 국가 프로그램이 기독상담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상담을 받았던 기독상담기관에서 바우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정보 검색을 통해 기독상담기관도 바우처 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지인의 조언에 따라 혹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세계관이 다른 상담자와는 어렵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기독상담기관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 상담자를 찾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 기독상담기관에 대한 검색을 통해 상담사 자격을 보고 기독상담

www.kci.go.kr

기관으로 상담을 신청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5는 기독상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발견했는데, '안전'은 단순히 비밀보장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도 포함하는 의미였다.

>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일단 비밀 보장이 되고 안전한 곳에서 상담... 교회 안에서 나눴다가 약간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제 이야기를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안전하게 제 얘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편히 할 수 있는.. 이전 상담에서 세계관이 너무 다르니까 얘기를 못하겠고..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에요...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간건데.. 정작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상담시간이.. 벽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느낌.. 그래서 기독상담센터 중에서는 마음투자 제공하는 데가 있는지부터 찾아봤어요(연구참여자5).

연구참여자6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곳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기독상담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받았다면 저는 일단... 상담사의 종교를 슬쩍 물어보거나..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했을 때 상담사 반응을 살피고... 안 받아주면 말하지 않고.. 약간 숨기면서 제 얘기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상담사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다면 상담도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6).

(2)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기독상담기관의 상담을 받는 경험

① 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안전한 환경을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판단 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경험과 내 이야기가 안전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다. 속 깊은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연구참여자1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험 자체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상담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연구참여자2도 말할 수 있는 안전감을 느끼는 한편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경험에서 치유를 느꼈고, 연구참

www.kci.go.kr

여자5는 나의 이야기가 안전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다.

> 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또 막 이상하게 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셔서 저는 그 자체로 되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인큐베이터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거나 하나님 이야기를..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5).

안전하게 마음을 나누어가는 동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결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졌다.

② 고통이 감소되며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고통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며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생활도 조금씩 개선되었다. 연구참여자3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읽게 되었다. 자신을 칭찬하지 못했던 연구참여자6은 상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죽음을 생각했던 연구참여자4는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 마음의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살 만한 상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지 않은 상태가 됐으니, 어떻게든 살겠다고 마음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나로..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3은 자신의 일기가 달라진 것을 발견하는 한편 기도하는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 요즘에는 글 쓰는 거 보면 제 감정에 대해서 쓰더라고요. 오늘은 이랬는데 이랬고 저랬는데 저랬어 하고.. 그러니까 전에 썼던 일기랑 지금의 일기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오늘 왜 그랬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위로도 하고 저한테 '사랑

www.kci.go.kr

> 해'라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학교에 제가 기도하는 아지트를 정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해요. 제가 지혜롭게 힘든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요(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삶에서 경험하는 일을 상담 시간에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면서, 상담에서 힌트를 얻은 후 삶에서 적용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3)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기독상담기관 상담 경험의 의미

① 국가는 숨통을 터주고 기독상담은 숨을 불어 넣어줌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 바우처 제도와 이 제도의 혜택을 통해 국가가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우처 상담을 기독상담으로 제공받으면서 안전한 느낌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국가는 숨통을 터주고 기독상담은 숨을 불어 넣어주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교회가 숨을 불어 넣어주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교회가 상담 기관을 세웠기 때문에 기독상담기관과 교회를 동일시하여 한 말이다. 재정적 부담없이 기독상담기관이 제공한 안전과 도움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모두가 바우처 상담 재이용 의사를 밝혔고 기독상담기관들의 바우처 상담 제공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했다.

> 숨통 하나 트여주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힘듦...같은 거를 국가에서 알고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필요한데.. 재정적인 부분이 정말 크거든요(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들 모두 급한 불만 끄는 상담이 되지 않도록 바우처로 상담받을 수 있는 회기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람의 고통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명의 연구참여자 중 4명은 첫 시행 연도와 바로 다음 연도에 다시 바우처 상담을 이용했다.

② 기독 전문상담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www.kci.go.kr

연구참여자들은 기독상담기관에서 바우처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보며 이해하게 되며 고통이 감소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성 있는 기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상담기관을 만난 것, 상담사님을 만난 것 모두 신묘막측한 타이밍... 일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은혜와 타이밍과 인도하심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뭐가 더 전문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필요한 게 이거면 이거를 도와주는게 저는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연구참여자5).

③ 상담은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 상담받는 것을 고민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기독상담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맞았다고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상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다.

> 다른 사람의 도움받는 것..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겸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상담은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생각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상담 지속하고 싶구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이거였구나..를 생각한 것이 이 상담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2)

Ⅲ. 닫는 글

1. 논의

1)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논의

연구참여자들이 바우처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도움 필요의 인식에서 상담 이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상담에 대한 두려움’, ‘국가 상담 지원에

www.kci.go.kr

대한 양가감정', '기독상담에 대한 고민'이라는 세 개의 산을 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심리적 저항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상담이라는 낯선 경험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과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국가 상담 지원 제도와 기독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선입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였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상담 참여 과정의 특징과 전환요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더 많은 내적 갈등을 경험했다 (Schultz et al., 2025; Mayers et al., 2007; 홍구화, 2022). 신앙 공동체의 시선 의식이나 교회 내 직분에 대한 부담, '혹시 판단 받지 않을까'하는 내적 갈등은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두려워하는 주제였다. 그럼에도 이 두려움의 산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보다 문제로 인한 '고통'이 더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는 상담자가 기독교인 내담자의 다층적인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국가의 상담사업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담추구 과정의 길에서 멈칫했다. 국가가 상담을 지원한다는 사실에 반가움도 있었으나 성과나 자살률 감소에 급급한 제도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보이거나 기독상담이 공공 제도 내에서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다. 이러한 의구심은 바우처 상담을 제공하는 기독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기대로 바뀌어 갔으며, 결정적으로 상담료 감면 혜택이 상담 접근에 가속도를 내게 했다. 즉,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이 사업 체계에서 기독상담기관이 제공기관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 내담자들로 하여금 상담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했고, 결정적으로 감면 혜택은 그들을 움직여 상담 서비스 체계 안에 들어오게 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기독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담 자체를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했고, 특히 기독교인 내담자인 연구참여자들의 낙인을 완화하는 기능도 하였다.

셋째,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정체성'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담을 결정했다. 이들은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곧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직면했고, 이는 단순히 종교적 선호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가치관을 지켜내고자 하는 깊은 갈망과 연결되었다. 즉 기독교인 내담자가 기독상담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의 결과이며 이는 기독상담자가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정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www.kci.go.kr

이상의 논의는 기독교인 내담자인 연구참여자들에게 바우처 상담 참여 과정은 단순히 제도적 혜택을 넘어, 자신의 고통을 직면할 수 있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 여정임을 보여준다.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접근의 단계별 도식을 〈표 3〉에 제공하였다.

〈표 3〉 기독교인 내담자의 바우처 제공 상담 접근의 단계별 도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상담에 대한 두려움	국가 상담 지원에 대한 양가감정		기독상담에 대한 고민
상담 접근의 인지·정서적 전환 요인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의 무게	기독상담 기관 정보	상담료 감면 혜택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 직면

2) 기독교인 내담자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상담 경험에 관한 논의

연구참여자들의 상담 경험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바우처 상담을 제공하는 기독상담기관에서 경험한 상담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상담'이었다.

이들에게 제공된 안전감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상담의 일반적 조건으로서의 기본적 안전은 물론, 판단 받지 않는 온전한 수용과 신앙적 자기개방을 할 수 있는 안전까지 포함된 두 층위로 이루어진 안전감이다. 연구참여자5가 '문제해결보다 더 중요한 안전감'이라는 진술을 한 것처럼 두 번째 층위의 안전이 없이 첫 번째 층위의 안전만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한 자기개방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 내담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담자가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고 그 생각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며 온전히 수용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Bornsheuer, Henriksen, & Irby, 2012; Cragun & Friedlander, 2012; 박진성, 2017; Lloyd, Reid, & Kotera, 2021).

또한 내담자들은 신앙에 대한 오해나 거부감 없이 자신의 문제를 신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영적인 문제를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6이 만약 상담사가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리를 둔 채 이야기하다가 상담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기독교인 내담자에게 신앙은 호소문제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www.kci.go.kr

경험하고 해석하는 틀 자체이므로 그 틀을 드러낼 수 없는 상담 환경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은폐되어 조기종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 내담자들에게는 상담자와의 세계관 일치가 상담관계 형성과 상담 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바우처 상담을 제공하는 기독상담기관에서 경험한 상담은 '변화를 경험한 상담'이었다. 안전감은 곧 변화의 토대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었고, 이러한 재해석은 마음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 초점을 미래에 두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질책이 긍정적인 자기인식으로, 세상의 성취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주어진 자리로, 회피에서 실천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절제를 시작한 연구참여자4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소중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험'을 한 후 무절제에 대한 성경의 조언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안전한 상담 관계에서 고통과 존재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 선행될 때 말씀으로 비춰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었던 자기 문제의 본질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이해되는 자유함을 느끼며 질서있는 통합적인 세계관을 경험하게 되었다(Mayers et al., 2007; 홍구화, 2022). 기독교인 내담자들에게는 자신의 고통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며 변화로 나아가는 상담이 가장 전문적인 상담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3) 기독교인 내담자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상담의 의미에 관한 논의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바우처 상담을 제공하는 기독상담기관에서 경험한 상담의 의미는 '하나님' 그 자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독상담기관의 기독상담을 경험한 후 상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모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에 개입하신 것'으로 확신하며, 상담 전(全) 여정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상담의 의미로 확신하였다. 상담 전 우려와는 달리 상담 이후 이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하였으며, 신앙적 정체성에 따라 기독상담기관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았다. 상담자를 통해 나누게 되고 듣게 된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을 알게 된 것과 해당 상담자를 만난 것, 그 타이밍 모두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자신의 문제나 삶을 영적 개념으로 보는 기독교인

www.kci.go.kr

내담자들의 특징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Mayers et al., 2007; 홍구화, 2022).

더 나아가 이들은 상담 전문성이 상담 기술이나 자격에 국한되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제를 함께 해석하는 능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기독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지점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의 지원으로 기독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만족감이 높았으며, 이는 '국가는 숨통을 터주고 기독상담은 숨을 불어 넣어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상담받기 전에 긴장관계였던 공적 지원과 기독전문상담이 서로 다른 기능으로 보완하는 관계로 인식되었다. 국가 정책은 재정적 부담과 낙인을 줄여 상담에 접근할 수 있게 했고, 기독상담은 '마음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기독교인 내담자들에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상담은 하나님께서 국가와 기독상담의 합력을 통하여 자신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선을 이루신' 의미가 있었던 것이며, 무엇보다 이 일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 내담자들을 위해 공적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안에서 기독상담기관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모두가 재이용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6명 중 4명은 첫 이용 연도의 다음 해에 다시 바우처를 발급받아 동일한 기관, 동일한 상담에게 상담을 이어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첫 바우처 상담 종료 후 일반 유료상담으로 상담을 이어가고자 했으며 연도가 바뀌어 다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8회기가 마음을 깊이 다루기에 다소 부족한 회기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연구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회기 확대를 요청하였고, 기독상담기관 바우처 제공이 증대되기를 바랐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기독상담사, 기독상담기관, 교회를 대상으로 한 대한 제언과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독상담사는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상담실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느꼈을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중 안전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이듬해 다시 바우처를 받아 같은 상담사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안전감을 준 관계가 상담 연속성 뿐 아니라 상담 전문성의 기준이 된다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상담초기 기독상담사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온 마음으로 경청하고

www.kci.go.kr

따라가면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여 내담자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내담자의 변화는 상담자로부터 안전감을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기독상담 전문성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자신이 가진 고유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해결의 틀로 보게 하고 그 과정을 해당 내담자에게 맞는 속도와 방법으로 맞추어 변화로 이끌어주는 것을 상담 전문성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독상담사는 기독교인 내담자들의 문제를 해석하는 신학적 이해와 그 문제를 묘사하고 내담자의 통찰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전문성을 모두 함양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기르며, 내담자의 심리적·영적 필요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상담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신학과 기술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변화'라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상담 기술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개념이 적용된, 즉 질서가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바우처 제공인력인 기독상담자는 바우처를 통한 기독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증거기반실천(EBP)의 연구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상담영역에서도 국가가 요구하는 표준은 근거기반실천에 기반하기에 기독교인 내담자나 바우처 제공기관으로서 기독상담기관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둘째,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독상담기관은 기독교적 정체성과 상담의 전문성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상담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 내담자가 상담추구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기독상담과 바우처상담을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들이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담 특성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상담사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바우처 제공기관인 기독상담기관은 기독교인 내담자의 신앙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상담의 전문적, 윤리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내담자들은 신앙의 정도와 기대가 다양하므로 내담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사전 안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기독상담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상담 종결 이후 다른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기독교인 내담자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능하는 체계가 가능하다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서 기독상담기관이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거점기관으로 기독교인의 정신건강과 회복을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셋째, 교회는 성도를 돌보는 과정에서 바우처 상담 제도와 지역 내외의 전문 기독상담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 교회 공동체와 교역자는 전문상담을 접하게 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반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우려는 교회 밖, 혹은 다른 지역의 기관을 찾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미 현대의 교회는 성도의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에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된 전문상담의 도움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교회가 목양 과정에서 필요시 적절히 기독상담기관을 연결하는 것은 성도를 돕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밀보장이 필요한 성도가 교회와 분리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상담기관이 협력체계망을 갖추어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적 가치와 삶의 맥락을 존중받으면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회기 수 확대 제도의 지속성,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제언한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상담 접근성을 높여 심리상담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이제는 내담자의 증상 수준과 상담 목표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상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정착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같은 상담자와의 연속성이 상담 성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종결 전 추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동일한 상담자와 회기 연장이나 후속 상담 더 나아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로 상담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 내담자와 같은 종교가 있는 이용자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하는 제공기관을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하며, 한편 내담자의 종교적·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 상담 학회와 협력하여 종교기관 제공인력 대상 비밀보장,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상담자와 종교지도자의 역할 경계와 같은 윤리교육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독교인 내담자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인 기독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기대, 기독 전문상담 경험, 그 경험의 의미를 6명의 사례로 탐색적 질적연구를 수행한 연구이다. 분석을 통해 71개의 주제에서 20개의

www.kci.go.kr

하위범주와 8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상담추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두려움, 국가 지원에 대한 양가감정, 기독상담에 대한 고민이라는 세 개의 산을 넘었다. 고통의 무게감, 국가의 상담료 지원, 주소지에 구애받지 않는 기관 선택 등으로 그 산을 넘고, 최종 신앙 정체성에 대한 재확인은 기독상담기관을 선택하게 한 핵심 동기였다.

둘째, 상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비밀보장과 신앙적 자기개방이라는 이중의 안전감을 경험하였다. 그 위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심리적 고통의 감소와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에게 바우처를 통한 기독상담은 '국가가 숨통을 터주고 기독상담이 숨을 불어넣어 준' 경험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상담은 기독상담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시간이며, 상담의 여정은 하나님과 깊고도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추구 과정과 특히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이용하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여 기독상담기관이 공적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안에서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 접근성과 상담 지속을 돕는 의미있는 제공자 될 수 있음을 내담자의 목소리를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6명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기독교인 바우처 이용자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양적 검증 연구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활용하는 기독교인 내담자가 비기독교 상담기관을 이용한 경험과 비교하는 연구, 비기독교인의 기독상담기관 이용 경험 연구, 더 나아가 기독상담기관의 영적 개입으로 인한 학술적 충돌 등을 다룬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논문 투고일: 2026년 09월 29일
•논문 수정일: 2026년 11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6년 11월 10일

√ √ √ √

www.kci.go.kr

【참고문헌】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https://doi.org/10.17841/jocag.2019.27.2.7

김경희 (2018).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영적 자질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6**(1), 33-64. https://doi.org/10.17841/jocag.2018.26.1.33

김성숙 (2021). 성인 아이의 동반의존 경험에 관한 단인 사례연구: 기독교 상담 관계 중심. **복음과 상담, 29**(2), 45-80. https://doi.org/10.17841/jocag.2021.29.2.45.

김영근 (2022). 초심상담자가 지각한 내담자 저항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977-1002. https://doi.org/10.23844/kjcp.2022.11.34.4.977

김우림, 김창대 (2019). 상담 서비스 이용 의사결정 과정: 원형-의향 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1), 21-37. https://doi.org/10.15703/kjc.20.1.201902.21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 상담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의 선행요인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19**(1), 87-111. https://doi.org/10.15703/kjc.19.1.201802.87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김지숙 (2016). 상담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상담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안나 (2022). 내담자가 지각한 성경적상담의 효과 요인에 관한 단일 사례연구. **복음과 상담, 30**(3), 99-131. https://doi.org/10.17841/jocag.2022.30.3.99

박연하 (2025). 상담에서 기독교인 내담자들의 교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성 (2017).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 성과 경험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1), 71-102.

보건복지부 (202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www.kci.go.kr

심정연 (2023). 기독교인들의 영적 갈망에 대한 연구: 현상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신학과 실천, 84**, 223-250. https://doi.org/10.14387/jkspth.2023.84.223

안경승 (2022). 감정 기능의 이해와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제안. **복음과 상담, 30**(3), 175-199. https://doi.org/10.17841/jocag.2022.30.3.175

안현미 (2013). 상담자 발달에 신앙경험이 갖는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현지, 김창대 (2022). 자기 가치 확인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3**(2), 99-117. https://doi.org/10.15703/kjc.23.2.202204.99

연규진, 이지미, 이수정, 이도형 (2016).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7**(5), 243-267. https://doi.org/10.15703/kjc.17.5.201610.243

이안나, 강영신 (202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22**(5), 107-136. https://doi.org/10.15703/kjc.22.5.202110.107

이혜정, 강연정 (2023). 기독교상담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복음과 상담, 31**(3), 197-233. https://doi.org/10.17841/jocag.2023.31.3.197

전진아, 윤강재, 김수경, 정세정, 연규진, 김현식, 정주리, 김덕기, 최소영, 박현아 (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질관리 방안 연구.**

정단아, 김수임 (2023).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심리적 불편감에 따른 군집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 **상담학연구, 24**(3), 87-107. https://doi.org/10.15703/kjc.24.3.202306.87

정선훈 (2019). 교회 내 상담코칭 학교 여성 참여자들의 변화경험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민영 (2021). 교회상담 효과에 대한 인식연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구화 (2022).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기능의 관계: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27**(4), 177-198. https://doi.org/10.30806/fs.27.4.202212.177

Bornsheuer, J., Henriksen, R. C., & Irby, B. J. (2012). Psychological care provided by the church: Perceptions of Christian church members. *Counseling and Values*, *57*(2), 199–213. https://doi.org/10.1002/

www.kci.go.kr

j.2161-007x.2012.00017.x

Cragun, C. L., & Friedlander, M. L. (2012). Experiences of Christian clients in secular psychotherapy: A mixed- methods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3), 379-391. https://doi.org/10.1037/a0028283

Greenidge, S., & Baker, M. (2012). Why do committed Christian clients seek counselling with Christian therapist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5*(3), 211-222. https://doi.org/10.1080/09515070.2012.673273

Creswell, J, W. (2017).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nd ed.). 학지사. (원전 2015 출판).

Fisher, E. H., & Turner, J. L. (1970). Orientation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https://doi.org/10.1037/h0020198

Frank, J. D. (1982). Therapeutic components shared by all psychotherapies, In J. H. Harvey & M. M. Parks (Eds.), *Psychotherapy research and behavior change* (pp. 9-3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083-001

Lefevor, G. T., Paiz, J. Y., Milburn, H. E., Sheffield, P. E., & Guerrero, N. A. T. (2021). Religiousness and help seeking: Individual, congregational, and clergy factor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35*(1), 89–109. https://doi.org/10.1080/09515070.2021.1874297

Lloyd, C. E. M., Reid, G., & Kotera, Y. (2021). From whence cometh my help? Psychological distress and help-seeking in the Evangelical Christian Church. *Frontiers in Psychology*, *12*, Article 744432. https://doi.org/10.3389/fpsyg.2021.744432

Mayers, C., Leavey, G., Vallianatou, C., & Barker, C. (2007). How clients with religious or spiritual beliefs experience psychological help-seeking and therapy: A qualitative study. *Clinical Psychology &*

www.kci.go.kr

Psychotherapy, *14*(4), 317-327. https://doi.org/10.1002/cpp.542

Schultz, D. M., Harrop, T. M., Preston, O. C., Bulla, B. A., Rodriguez, T. R., Finn, J. A., & Anestis, J. C. (2025). Attitudes and preferences regarding mental illness and treatment among Christian and religious/spiritual-unaffiliated individuals in the USA.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4*(3), 2034–2052. https://doi.org/10.1007/s10943-025-02332-4

Scott, S., & Lambert. H. (2017). **성경으로 상담하라** (장보철 역, *Counseling the hard cases*). 요단. (원전 2012 출판).

Stanford, M. S., & McAlister, K. R. (2008). Perceptions of serious mental illness in the local church. *Journal of Religion, Disability & Health*, *12*(2), 144–153. https://doi.org/10.1080/15228960802160654

Sperry, L. (2007). **목회 상담과 영성지도의 새로운 전망** (문희경 역, *Transforming self and community*). 솔로몬. (원전 2002 출판).

Weld, C., & Eriksen, K. (2007). Christian clients' preferences regarding prayer as a counseling interven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5*(4), 328-341. https://doi.org/10.1177/0091647107035004

Yin, R. K. (2016). **사례연구방법** (신경신, 서아영, 송민채 역,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한경사. (원전 2013 출판).

메디팜헬스뉴스 (2026. 7. 10).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재난·트라우마 대응체계·심리서비스 운영 사례 공유. https://www.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117782에서 2026년 7월 31일 인출.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한국교인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https://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7에서 2025년 9월 4일 인출.

민주당 국감자료실 (2025.10.2). 서미화의원 보도자료-전국민 마음 투자 수도권, 20~40대에 집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1000&brd=17&post=1213851&search=에서 2026년 7월 31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1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장의견 청취.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362&mid=a10503010100에서 2026년 3월 26일 인출.

www.kci.go.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5.1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https://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1485969에서 2026년 6월 14일 인출.

복지로 (202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복지로 사이트. 2026년 3월 26일 인출.

여성신문 (2025.9.11).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수도권청년층 집중 접근성 강화해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15에서 2026년 1월 5일 인출.

조선일보 (2025.9.11). 전국민 이름 무색한 마음투자 사업- 수도권·20~40대 편중.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835에서 2026년 7월 31일 인출.

한국일보 (2024.07.04). 더 우울해진 한국인 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416140003394?did=NA에서 2026년 1월 5일 인출.

www.kci.go.kr

【Abstract】

An Exploratory Case Study of Christian Clients' Experiences with Christian Counseling Centers Providing Mental Health Psychological Counseling Vouchers

Park, Anna* Lee, Soo Jin** Han, Kyung Shin***

This exploratory case study examined the entire counseling process and the meaning of that experience for Christian clients receiving voucher-supported counseling at Christian counseling centers. Despite expanding public mental health support, understanding of clients' choices and experiences of Christian counseling through vouchers remains limited. Following Creswell's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six adult Christians who had completed at least eight voucher-supported Christian counseling sessions were selected. Each participated in one 60-minute in-depth interview between July 20, 2025, and March 12, 2026. Analysis yielded 71 themes, 20 subcategories, and eight overarching categories. Participants navigated fears about counseling, ambivalence toward government support, and deliberations about Christian counseling before choosing Christian counseling centers to reaffirm their faith identity. Confidentiality and safety in disclosing their faith enabled them to reinterpret suffering from God's perspective and experience psychological relief and life changes. They understood vouchers as public support that reduced financial burdens and Christian counseling as a process of spiritual restoration and experiencing God's guid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inking public mental health services with Christian counseling may support access to and continuation of counseling.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clients, mental health, psychological counseling voucher, Christian counseling centers, exploratory case study

---

* Hessed Counseling Center / Director

, * Hessed Counseling Center / Professional Counselor

www.kci.go.kr